

◆ 연구논문 ◆

칼빈의 성서해석과 자연과학*

천 사 무 엘

(한남대/구약학)

〈Abstract〉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John Calvin's view of the natural science in his commentaries of the Bible, dealing with themes such as his Aristotelian cosmology, his attitude of Copernican theory, and his understanding of the creation story and the flood story in the Bible. Though Calvin believed the traditional cosmology represented by Aristoteles and never accepted the new astronomy of Copernican theory, he did not condemn Copernicus and his followers unlike Luther and Melanchton. He was positive about the development of the natural science, because he thought it would reveal the hidden secret and providence of God the Creator. He argued the Scripture should not be considered as a source of scientific information, but

* 본 논문은 2006년도 한남대학교 교비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as the book of furnishing knowledge of Jesus Christ, which used the very common language and style for uneducated people. It meant that the Bible could not be compatible with his contemporary scientific knowledge. Accordingly, he developed and applied the principle of accommodation to interpret the creation story and the flood story in his biblical commentary. His theory of biblical interpretation made scientists free from biblical literalism and develop the natural science.

〈주제어〉

칼빈, 자연과학, 성서해석, 종교개혁, 코페르니쿠스, 과학, 종교

1. 들어가는 말

16세기 서구 역사에서 두 가지 혁명적인 지적 활동이 로마 카톨릭 신부들에 의해서 행해졌다.¹⁾ 하나는 1517년 독일의 신부 마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가 95개 조항을 발표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1543년 폴란드의 신부 코페르니쿠스(Nicholas Copernicus, 1473-1543)가 지동설에 관한 책,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De revolutionibus orbium coelestium)를 출판한 것이다. 전자는 새로운 신학과 신앙 그리고 교회 형태의 출현을 알리는 것이었고, 후자는 새로운 천문학과 우주관 그리고 자연과학의 출현을 알리는 것이었다. 이 둘은 종교와 과학이라는 각기 다른 두 분야에서 있었던 새로운 사고였지만, 성서해석과 관련하여 서로 무관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루터는 종교개혁의 필요성은 알았지

1) B. A. Gerrish, "The Reformation and the Rise of Modern Science: Luther, Calvin and Copernicus," in *Calvin and Science*, ed., R. C. Gamble (New York: Garland, 1992), 1.

만 여전히 중세의 우주관에 근거하여 성서를 해석했고,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은 천동설에 근거하여 쓰인 성서의 내용과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루터는, 여호수아 10:12-14(“...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 섰다...”)에서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에게 멈추라고 명령한 것을 언급하면서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이 성서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 사람은...천문학의 전부를 뒤엎어버리기를 바라고 있다...나는 성경을 믿는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지구가 아니라 태양에게 멈추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²⁾

루터뿐만 아니라 그의 영향을 받은 칼빈(John Calvin, 1509-1564)도 중세 천문학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성서를 해석했다. 그도 루터처럼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하는 지동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전통적인 천동설에 의하여 성서를 해석했다.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에 태양이 가다가 멈춘 것(수 10:13)과 히스기야에 대한 은총으로 태양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간 것(왕하 20:11)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태양이 자연의 맹목적인 본성에 의해서 매일 뜨고 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그 행로에 따라 주관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다...”³⁾ 지동설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칼빈은 루터 등 다른 종교개혁자들과 함께 반과학적(anti-scientific)이라거나 과학의 발전을 반대했다는 오해를 받기도 했다.⁴⁾ 그리하여 화이트(Andrew D. White)는 칼빈이 성서의 권위 훼손 때문에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반박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칼빈은 그의 창세기 주석에서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을 저주하면서 앞서 나갔다.

2) Luther, M., “Table Talk, No. 4638,” in *Works*, ed., J. Pelikan and H. T. Lehmann, Vol. 54 (Philadelphia: Fortress, 1967), 358-59.

3) 『기독교강요』 1.16.2.

4) R. White, “Calvin and Copernicus: The Problem Reconsidered,” in *Calvin and Science*, 131.

그는 시편 93편 1절을 주석할 때 이 문제를 결판내면서 이렇게 물었다. ‘누가 감히 성령의 권위 위에 코페르니쿠스의 권위를 놓을 것인가?’⁵⁾ 그러나 칼빈은 시편 93:1이나 다른 곳에서도 “누가 감히 성령의 권위에 코페르니쿠스의 권위를 놓을 것인가?”라는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코페르니쿠스라는 이름을 언급한 적도 없었다.⁶⁾

칼빈은 코페르니쿠스적인 지동설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는 자연과학의 발전에 반대하거나 부정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자연과학의 탐구를 신학과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여겼고 이를 장려했다. 본 논문은 칼빈의 성서해석에 나타난 자연과학에 대한 태도를 고찰하는 것이다. 칼빈은 자연과학의 탐구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성서의 내용과 자연과학의 탐구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때 칼빈은 성서를 어떻게 해석했는가? 그는 왜 자연과학의 발전을 장려하면서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2. 자연과학에 대한 태도

칼빈은 자연과학을 신앙에 도움을 주는 요소로 여겼다. 그는 천문학, 의학을 포함한 모든 자연과학은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 창조의 비밀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에 대한 증거

5) A. D. White, *History of the Warfare of Science with Theology*, Vol. 1 (New York: Appleton, 1896), 127. 화이트는 미국 코넬대학교의 초대 총장이었는데, 그는 이 책에서 서구 과학의 역사를 종교, 즉 기독교와의 투쟁의 과정으로 여기고 있다.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 이 책은 재판을 거듭할 만큼 많이 읽혀졌으며, 특히 과학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다른 한편, 러셀도 “누가 감히...놓을 것인가?”라는 말을 칼빈이 한 것으로 잘못 인용했다. B. Russell, *Religion and Scienc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35), 23;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 (London: Allen and Unwin, 1946), 550.

6) Gerrish, “The Reformation and the Rise of Modern Science,” 8.

는 하늘과 땅에 무수히 많이 있는데 천문학, 의학, 그리고 모든 자연과학 등과 같은 심원한 증거들뿐만이 아니다...이들 고등학문을 다소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배움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을 더 깊이 통찰할 수 있을 것이다.”⁷⁾ 그리하여, 예를 들면, 천문학에서는 천체들의 질서 정연한 운행, 그들의 위치, 거리 측정 그리고 그 속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정교한 기술과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의학에서는 인체의 오묘하고 아름다운 구성을 정확히 알아낼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체 조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마참가지이다. 신체의 각 부분의 연결, 대칭성과 아름다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정교함이 요구된다.”⁸⁾

칼빈은 자연과학이나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만들어진 발명품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겼다. 그는 창세기 4:20-22에 나오는 가인의 자손들 중 기술자들의 조상이 된 자들을 언급하면서 예술이나 과학 그리고 생활용품이나 기술의 발명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다. “예술과 생활용품의 발명은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선물이며 칭찬을 받을 만한 능력이다.”⁹⁾ 그러나 그는 이러한 발명과 기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인류 사회의 공통적인 유익에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제 비록 현금 그리고 이와 유사한 악기들을 발명한 것이 우리의 필요성보다는 우리의 쾌락에 기여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전적으로 불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 그 자체로서는 정죄될 수 없다. 사실 쾌락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인류 사회의 공통적인 유익과 잘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음악의 본질상 그것은 종교 제도에 채택될 수 있고 인류를 위해 유익하게 이용될 수 있다. 단지 그것이 사악한 도취와, 그 악기로 인하여 어리석은

7) 『기독교강요』 1.5.2.

8) 『기독교강요』 1.5.2.

9) 창세기 4:20 주석.

기쁨을 추구하는데서 탈피될 때에... 그런 보람 있는 유익한 결과를 가져 오는 것이다.”¹⁰⁾ 자연과학이나 기술의 발달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러한 발전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이 종교의 건전한 가르침과 인류의 삶에 유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칼빈은 또한 과학 기술을 평가할 때에 그것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정죄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기술의 발달이 비록 이방인이거나 불신양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일지라도 기술 그 자체를 거부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연과학이나 기술이 신앙인이나 불신양인 혹은 그 누구에 의해서건 발달되는 것은 바람직하며 인간에게 유용하게 이용될 때에 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칼빈은 그러한 기술을 발전시킨 사람들이 신앙인이든 불신양인이든 고대 철학자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 혹은 성령의 탁월한 은총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모든 과학적인 지식을 인간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¹¹⁾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가인의 아들이 비록 중생케 하시는 성령은 박탈되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그다지 비천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사들을 부여받고 있다는 것을 알자. 모든 시대의 경험은 하나님의 빛의 광선이 현재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유익하도록 얼마나 광범위하게 불신의 나라들에게도 비취는지를 가르쳐준다. 더욱이 인문학과 과학은 이방인들에게서 우리에게 전수되었다. 사실 우리는 천문학, 철학의 다른 분야들, 의학과 시민정치제도를 그들에게서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¹²⁾

칼빈이 과학 기술의 발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모든 진리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즉 과학자나 기술자가 신앙인이든

10) 창세기 4:20 주석.

11) W. S. Reid, "Natural Science in Sixteenth-Century Calvinistic Thought," in *Calvin and Science*, 187.

12) 창세기 4:20 주석.

불신앙인이든 고대인이든 현대인이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과학적인 지식을 주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속 저자들의 글을 읽을 때, 그 안에 나타나 있는 훌륭한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야 한다. 즉 인간은 비록 타락하고 원래의 온전함으로부터 빛나갔지만 인간의 생각은 아직도 창조주로부터 온 훌륭한 선물들을 부여받았고 이것들로 장식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성령을 진리의 유일한 근원으로 여긴다면,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모욕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진리가 어디에서 나타나든지 간에 진리 그 자체를 거부하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 대신에 그들의 산업에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단지 미쳤다고 말할 것인가? 우리는 수학에 대해서 무어라 말할 것인가? 우리는 그것들을 미친자들의 꿈으로 여겨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우리는 가장 최고의 칭송 없이 이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고대인들의 글을 읽을 수 없다.”¹³⁾ “주께서 물리학, 논리학, 수학 그리고 다른 유사한 과학 분야에 있는 불신앙인들의 사역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를 돕는 것을 기뻐하신다면... 그것을 이용하도록 하자.”¹⁴⁾

그리스도인들이 훌륭한 과학 기술의 발전을 접할 때 그것을 칭송할 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러한 기술의 근원이 성령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성령은 그러한 기술을 과학자들이나 기술자들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과학 기술을 접할 때 그것의 발명자가 신앙인이든 불신앙인이든 상관하지 말고 인류의 삶에 유용하게 사용해야 하며, 그것을 무시하거나 경시할 경우 그것을 선물로 주신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칼빈이 자연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대해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13) 『기독교강요』 2.2.15.

14) 『기독교강요』 2.2.16.

취했지만, 그는 당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던 자연과학적인 지식의 소유자였다. 즉 그는 16세기 당시 표준적인 과학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과 우주론에 근거하여 자연현상을 이해했다.¹⁵⁾ 그리하여 그는 지구가 움직이지 않고 안정되어 있으며, 천체가 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지구의 움직이지 않는 안정성은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표시라고 여겼다. 이와 같은 그의 우주론은 시편 93:1의 주석에 잘 나타나 있다. “세계를 간단히 개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섭리를 입증하는데 충분할 것이다. 천체는 날마다 회전한다. 그리고 그 구조는 거대하고 그 회전의 속도는 상상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진동이나 움직임의 조화에 있어서의 어떠한 소동도 감지하지 않는다. 태양은 매번의 일주운동 코스가 다르지만 매년 같은 지점으로 돌아온다. 행성들도 모두 중잡을 수 없이 다니지만 각자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공중에 매달려 있는 지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늘의 천체들이 부단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동안 지구는 어떤 방법으로 움직이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가?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것을 고정시켜 놓으셨기 때문이 아닌가?”¹⁶⁾ 지구가 다른 천체처럼 움직이거나 요동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구를 안정되게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칼빈이 당대의 자연과학적인 지식의 소유자였다는 것은 천문학에 대한 그의 태도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는 미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천문학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별들의

15)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은 중세 시대뿐만 아니라 르네상스 시대에도 우주를 설명하는 지배적인 이론이었다. C. Kaiser, "Calvin, Copernicus, and Castelli," in *Calvin and Science*, 45. 바버에 의하면,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에 대한 초기의 반박은 대부분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존경심의 산물이었다. I. G. Barbour, *Religion and Science: Historical and Contemporary Issues* (San Francisco: HarperCollins, 1997), 13.

16) 시편 93:1 주석.

움직임을 관찰함으로 기근, 역병, 흉년 등을 때로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사야 19:12를 주석하면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내다보거나 알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중요한 방법은 성령의 계시에 의한 것으로 이것만이 우리를 확신케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매우 드물고 비범하게 나타나는 예언의 은사에 의한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천문학에 의한 방법이다. 세 번째 방법은 과거의 사건들을 비교하는 방법인데, 이것에서 보통 사려분별력을 얻게 된다. 별들에 대한 지식에 대해 말하자면 그 위치와 접근에서 때로 기근, 식량 부족, 역병, 흉년 그리고 그런 종류의 몇 가지 사실들을 가끔 알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이런 것들일지라도 확실할 수 없는데, 단순한 추측에 의존하기 때문이다.”¹⁷⁾ 이것은 천체의 관측을 통해서 미래를 알고자 했던 당시의 사고를 반영한 것이다. 실제로 16세기에 유럽에서는 점성학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으며, 심지어는 신학, 의학 등의 분야에서까지 이를 연구하고 토론했다.¹⁸⁾

3. 칼빈과 코페르니쿠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칼빈은 지구가 움직이지 않고 천체가 움직인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가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비난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칼빈이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알았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의 문서에 코페르니쿠스의 이름이나 이론을 직접 언급한 구절이 한군데도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란은 증폭되었다. 문서상의 증거를 처음으로 제시하면서 칼빈이 반코페르니쿠스적이었다고 주장한 사람

17) 이사야 19:12 주석.

18) C. M. Probes, "Calvin on Astrology," in *Calvin and Science*, 120. 종교개혁자 멜랑히톤은 점성학을 가능한 과학이라고 주장했다.

은 프랑스 학자인 스타우퍼(Richard Stauffer)였다. 그는 1971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고린도전서 10-11장에 대한 칼빈의 여덟 번째 설교(Eighth Sermon on 1 Corinthians 10-11)를 그 증거로 제시했다.¹⁹⁾ 여기에서 칼빈은 고린도전서 10:19-24를 주석할 때에, 그의 청중들에게 우상숭배에 참여한 1세기 기독교인들의 행동을 닮지 말 것을 경고했다. “모든 것을 반박하기 위해서 확책하고 자연의 질서를 곡해하는, 악의에 찬 모순의 영을 가진, 이러한 미친 사람들처럼 되지 맙시다. 우리는 아주 완전히 미쳐 날뛰는 어떤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들은 종교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그들의 기괴한 본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심지어 태양이 움직이지 않고, 분발하여 빙빙 도는 것은 지구라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악마가 그들을 사로잡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우리(fold) 안에 우리가 머물도록 그들을 우리 앞에 거울로 놓으셨다는 것을 실제로 고백해야 한다. 악마는 분명한 악의를 가지고 논쟁하는 모든 자들, 그리고 건방진 행동을 뽐내하게 보여주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저것은 뜨겁다’고 말할 때 그들은 ‘아니다, 분명히 차갑다’고 대답할 것이다. 여러분이 검은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면 그들은 그것이 희다고 말할 것이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것은 마치 눈이 검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경우와 같다.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흰 것은 분명히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사실을 공공연하게 반박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이런 경우이다. 미친 자들은 바로 자연의 질서를 바꾸려 하고,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켜서 그들의 감각을 무디게 하려는 자들이다.”

스타우퍼는 칼빈이 반박하는 대상이 코페르니쿠스와 그의 추종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칼빈이 “태양이 움직이지 않고, 분발하여 빙빙 도는

19) R. Stauffer, "Calvin et Copernic," *Revue de l'Histoire des Religions*, 179 (1971), 31-40.

것은 지구”라고 말한 대상은 그리고 “자연의 질서를 바꾸려 하고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켜서 그들의 감각을 무디게 하려는 자들”이 바로 코페르니쿠스와 그의 이론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이다.

호йка스(R. Hooykaas) 역시 이 구절이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반박한 것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²⁰⁾ 그러나 그는 칼빈이 지동설을 비난한 이유는 그것이 성경 즉 “특별계시”(special revelation)에 반대되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감각과 이성을 통한 “일반 계시”(general revelation)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칼빈은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이 성경에 반대되기 때문에 반박한 것이 아니라 당시 천문학과 상식을 통하여 알려져 있던 자연의 질서와 일치하지 않았기 저주했다는 것이다.

화이트(Robert White)는 스타우퍼가 문제가 되는 설교의 역사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²¹⁾ 그는 16세기 제네바에서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또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화이트는, 칼빈이 성서에 근거해서 코페르니쿠스를 저주했다는 주장은 재고되어야 하며, 만일 문제가 된 설교에서 칼빈이 코페르니쿠스를 비난했다면 그것은 우발적인 것이지 설교의 중심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카이저 역시 스타우퍼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칼빈이 염두에 두고 있는 인물은 코페르니쿠스가 아니라 그의 적수였던 세바스티안 카스텔리오(Sebastian Castellio)라고 주장했다.²²⁾ 즉 칼빈의 이 설교가 행해진 것으로 추정되는 1556년경의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칼빈의 비난은 반코페르니쿠스적(anti-Copernican)이 아니라 반카스텔리안적(anti-Castellian)

20) R. Hooykaas, "Calvin and Copernicus," in *Calvin and Science*, 35-44.

21) R. White, "Calvin and Copernicus: The Problem Reconsidered," in *Calvin and Science*, 131-41.

22) C. Kaiser, "Calvin, Copernicus, and Castellio," in *Calvin and Science*, 45-71.

이라는 것이다. 그는 특히 설교 내용이 키케로(Cicero)가 『아카데미카』(*Academica*)에서 히세타스(Hicetas)를 비난한 것과 유사하다고 지적하면서, 칼빈이 저주한 대상은 코페르니쿠스의 태양중심적인(heliocentric) 사고가 아니라 반지구역학적인(antigeodynamic) 사고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칼빈이 즐겨 읽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키케로의 책에는 히세타스가 지구의 움직임을 주장하는데 대해 비난하는 내용이 있다. “시라큐스의 히세타스는, 데오프라스투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하늘, 태양, 달, 별들, 그리고 한마디로 위의 모든 것들이 정지되어 있고, 지구를 제외한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움직이지 않는데, 지구는 매우 빠르게 그 축을 회전하고 둥글게 감아 돌면서, 마치 지구가 정지되어 있고 하늘이 움직일 때에 나타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나타낸다고 주장한다.”²³⁾

요약하면, 루터와 멜랑히톤은 성서를 인용하면서 코페르니쿠스를 공공연히 비난했지만, 칼빈의 문서에는 그의 이름이나 이론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칼빈의 고린도전서 10:19-24에 대한 설교는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비난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고 칼빈이 그의 이론에 동조하거나 받아들였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다른 종교개혁자들처럼 그의 이론에 비판적이었을 것이라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코페르니쿠스의 새로운 이론은 칼빈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당시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자연과학적인 사고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칼빈은 자연과학의 발전에 긍정적이었지만, 새로 출현한 그리고 천문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 동조자들이 별로 없었던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²⁴⁾

23) Cicero, *Academica*, 2.39.123. 본문과 영문 번역은 *Cicero: De Natura Decorum - Academica*, trans., H. Rackham (LCL;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33)을 보라.

24)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은 매우 천천히 그리고 점진적으로 받아들여졌다. 1600년까지 그의 이론을 동조하는 천문학자들은 별로 없었다. R. J. Blackwell,

4. 창조 기사 이해

칼빈은 젊은 시절 대학에서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로 훈련을 받아 새로운 학문에 대해 개방적이었고, 자연과학의 발전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다.²⁵⁾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자연과학적인 지식은 성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그 중의 하나가 구약에서 묘사하는 창조에 관한 내용이다. 예를 들어, 성경에 나오는, 하늘 위에 물이 있다(창 1:6)거나 달이 해 다음으로 큰 발광체이다(창 1:16)라는 표현은 칼빈 당시의 천문학적인 내용과 일치하지 않았다. 칼빈은 이러한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응의 원리(principle of accommodation)라는 성서해석 이론을 사용했다.

칼빈의 성서해석에 있어서 적응의 원리란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 가장 약하고 무식한 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이 사용하는 사고와 언어로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매한 인간을 위하여 아주 낮아지셔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매우 통속적인 방법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내용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저자 당시의 문화적 상황을 고려해서 해석되고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성서문자주의(biblical literalism)를 넘어서는 것으로 자연과학의 발전에 공헌하는 것이었다.²⁶⁾

Galileo, Bellarmine, and the Bible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1), 23.

25) 칼빈과 인문주의의 관계에 대해서는 W. J. Bouwsma, *John Calvin: A Sixteenth Century Portrai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이양호, 박종숙 역, 『칼빈』(서울: 나단, 1991), 263-99; J. Wendel, *Calvin: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 (London: Collins, 1963), 김재성 역, 『칼빈: 그의 신학사상의 근원과 발전』(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2), 30-42를 참조하라.

26) A. E. McGrath, *Science and Religion: An Introduction* (Oxford: Blackwell,

즉 성서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이를 고수하거나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칼빈의 성서해석관은 자연과학의 발전에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었고 천문학자 등 자연과학자들에게 연구의 자유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칼빈이 자연과학적인 표현에 적응 이론을 적용시킨 대표적인 실례는 창세기 1:16(...큰 광명과 작은 광명...)의 주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칼빈은 16세기 당시 천문학에서 가르치는 내용, 즉 하늘의 별들은 각각 고유의 활동 영역이 있고, 토성은 달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달이 해 다음으로 큰 발광체라고 언급하는 성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칼빈은 모세의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경의 저자가 모세라는 전통적인 견해를 받아들였던 칼빈은 본문에서 모세가 이와 같이 표현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모세는 여기에서 철학자로서 자연의 비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모세는 통속적인 문체로 교육받지 않았지만 상식이 있는 보통 사람들도 일반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을 썼다. 그러나 천문학자들은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은 노력을 들여 연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구는 비난되지 말아야 하고 이러한 과학은 저주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몇몇 광기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들은 모두 단호하게 거부하기 때문이다. 천문학은 즐거운 학문일 뿐만 아니라 알아야 될 유용한 것이다. 이러한 기술은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를 제시해 준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모세는 무식한 자들과 유식한 자들의 선생으로 임명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영성한 교육방법을 사용하지 않고는 그의 임무를 완수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가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말했다면,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한 주제가 자신들의 능력을 넘어서 있다고 호소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일반 학교를 열었기 때문에 모세가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내용을 주로 선택했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만약 천문학자가 별들의 실제적인 차원에 대해 알아본다면 그는 토성보다 달이 더 작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알기 어려운 것이다. 왜냐하면 보기에는 그것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세는 담론을 할 때에 일반적인 용법을 채택한 것이다...”²⁷⁾ 모세가 달을 별보다 큰 발광체로 묘사한 것은 무식한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게 보이는 그대로 설명한 것이지 천문학적 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서의 묘사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칼빈은 창세기 1:6의 “물과 물로 나뉘라”는 구절도 당시 천문학과 일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그는 이것도 모세가 교육받지 않은 무식한 사람들을 위하여 표현한 것이지 실제 천문학적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모세는 이 공간의 특별한 사용을 묘사하여 물과 물로 나뉘라고 했는데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를 야기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식과 반대되고 하늘 위에 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믿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이다...나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분명한 원리인데, 즉 여기에서는 세상의 보이는 형태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천문학과 난해한 기술을 배우려는 자는 다른 곳으로 가게 하자. 여기에서는 성령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신다...이것은 무식한 자들의 책이다...여기에서 의미하고 있는 물은 무모하고 무식한 자들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나는 결론한다...하나님은 구름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을 우리 위에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것들이 돌발적으로 물을 뿜어내어 우리를 삼키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제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특별히 그 물들을 막는데 있어서 액체와 유동적인 공기보다 더 좋은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게

27) 창세기 1:16 주석.

하자'고 말씀하신 것이다.”²⁸⁾

시편 148:4(“하늘 위에 있는 물들”)를 주석할 때에도 칼빈은 하늘 위에 있는 물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힌다. “그는 비를 하늘 위의 물이라고 부른다. 어떤 사람들이 추측하는 것처럼... 위에 저장된 물이 있다고 추측할 근거는 없다. 시편 기자가 이러한 물들이 위에 있다고 말할 때, 그는 분명히 비가 오는 것을 지적인 것이다. 사용되고 있는 언어를 문자 그대로 엄격하게 따르면서, 마치 하늘에 어떤 바다가 있고 거기에 물들이 영원히 저장되어 있는 것처럼 이해할 수 없다. 모세와 예언자들은 가장 낮은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게 일상적인 통속적 문체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공중에 매달려 있는 물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시편 기자는 ‘물들이 물들로 나뉘어졌다’(창 1:6)고 말한 모세로부터 표현의 형태를 빌려왔다.”²⁹⁾

하늘에는 구름이 있고 이 구름은 비를 뿌리게 되는데, 성경은 바로 이러한 현상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묘사는 천문학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무식한 사람들,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서의 내용이 천문학의 연구결과와 불일치한다고 해서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문학적인 깊은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지식을 찾기 위해서 성서를 연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천문학자에게 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칼빈은 적용 원리를 적용하여 천문학과 관련된 창조 기사를 해석했는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로, 성서는 기록 당시의 청중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표현방식을 사용한다. 창조 기사 경우 고대 이스라엘의 세계관과 언어 표현 방식을 사용한다.

28) 창세기 1:6 주석.

29) 시편 148:4 주석.

둘째로,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 성서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즉 창조 기사에서 표현하고 있는 우주의 모습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오늘날의 자연과학적 지식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어리석다.

셋째로, 자연과학자들의 연구는 때로 성서의 내용과 부합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를 거부하거나 저주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과학자들이 깊이 연구한 내용을 받아들여 우주와 자연의 실제적인 차원을 이해해야 한다.

넷째로, 오늘날의 자연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성서를 부정적으로 판단하여 그 내용이 조잡하다거나 비과학적이라고 조롱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성서가 기록된 시대적 상황과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본문을 이해해야 된다.

다섯째로, 자연과학자들은 그들의 깊은 연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해야 한다. 즉 과학적 연구 결과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섭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용해야 한다.

여섯째로, 성서를 과학적 정보(scientific information)를 제공하는 자료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성서는 과학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하는 신앙적인 책이다. 따라서 성서의 문자적인 내용을 과학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³⁰⁾

성서와 자연과학의 불일치는 천문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칼빈은 창조 기사의 내용이 당시 지리학과도 일치 않는다고 지적했다. 창세기 2:10에는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라고 하는데, 칼빈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위치로 볼 때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지

30) 칼빈에 의하면, 오경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삶의 교훈(doctrine of life)이요, 둘째는 위협과 약속이다. 그리고 셋째는 은혜의 계약인데 그리스도에 근거하고 있는 이것은 모든 특별한 약속 안에 포함되어 있다”(이사야 주석 서문). 이것은 성서가 신앙적인 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않다고 했다. 그렇다고 당시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홍수로 인하여 지구가 변모되었기 때문에 성서에서 말하는 네 개의 강을 찾는 것이 당시에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칼빈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당시의 땅덩어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똑같다고 주장하면서 네 개의 강이란 표현은 두 강이 합류되었다가 다시 나뉘어져 바다로 흘러드는 모습을 모세가 통속적인 방법으로 묘사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비손 강이나 기혼 강은 독립된 강이 아니라 유프라테스 강이나 티그리스 강을 지역에 따라 달리 부르는 명칭이라고 했다.

“그러나 내가 이해하기로는 그 네 개의 강은 강들이 시작되는 처음 근원들과 그 강들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하구들을 의미한다. 현재의 유프라테스 강은 예전에 티그리스 강과 합류되어 하나의 강이 되었는데, 이것은 한 개의 강이 네 개의 강줄기로 나뉘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모세는 예리하거나 철학적인 방법으로 말하지 않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말하는데, 이것은 최소한의 정보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이해하기 위함이었다...그러나 문제는 비손과 기혼이라는 강 명칭에 있다. 왜냐하면 그 각 강에게 이름을 이중으로 부여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들이 흘러가다가 지역에 따라 그 명칭이 달라진다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비일비재한 일이다.”³¹⁾

칼빈은 두 개의 강이 합류했다 갈라지는 것을 네 개의 강이라고 모세가 말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지도를 그려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플리니(Pliny), 폼포니우스 멜라(Pomponius Mela), 네르쿠스(Nearchus), 스트라보(Strabo) 등 고대인들이 쓴 역사나 여행보고 등을 인용하면서 그들이 묘사하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주변의 모습을 끌어들여 장황하게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성서와 지리학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도 칼빈은 적응의 원리를 적용하여 성서의 내용이 통속적인 방법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

31) 창세기 2:10 주석.

기 위해서는 지리학의 내용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성서의 지리적인 내용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고대인들의 표현 방식을 고려하여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5. 홍수 기사 이해

창세기 6-9장에 나오는 홍수 기사에도 칼빈이 가지고 있던 자연과학적 상식에 문제가 되는 내용이 있었다. 노아가 만든 방주에 과연 그 많은 동물들이 들어갈 수 있었는가?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까? 이러한 물음은 당시 성서의 내용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문제이기도 했다.

먼저, 방주의 크기에 대해 칼빈은 말하기를 창세기 6:15에 묘사된 방주의 규격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다. 왜냐하면 모세는 여기에서 방주의 크기를 과학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통속적인 방법으로 설명하기 때문이다. “...방주의 크기에 관해서는 더욱 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모세를 모독하면서 공개적으로 비웃고, 그토록 많은 동물들을 어떻게 그렇게 작은 곳에다 쳐 박아 놓았는가 하고 상상하면서 모세를 조롱하기 때문이다...이집트에서 모든 과학 교육을 받은 모세는 기하학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모세는 사람들의 능력에 맞게 일반적인 문체로 모든 곳에서 말하고 있고, 학파와 보다 깊은 학식의 냄새를 풍기는 예민한 논쟁에서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세가 일반적인 방법과는 반대되게 기하학적인 정교함을 사용하고 있다고 내 자신을 결코 설득할 수 없다. 1장에서 모세가 철학자들이 하는 것처럼 과학적으로 별들을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는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하여 통속적인 방

법으로 ‘두 개의 큰 빛’이라고 그것들을 불렀던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모세가 그것들의 일상적인 이름에 의하여 모든 것들을 지칭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나 규빗의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 나는 모른다.”³²⁾

칼빈은 방주의 크기를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즉 “그 길이는 삼백 규빗, 너비는 오십 규빗, 높이는 삼십 규빗”이라는 묘사로 알 수 없다고 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규빗이라는 단위는 기학학적으로 정교한 것이 아니라, 통속적인 방법으로 즉 모든 사람들이 들어서 알 수 있게 단순히 크다는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서의 규빗이 어느 정도 인지를 과학적인 연구를 통하여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방주에 과연 그 많은 동물들이 다 들어갈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칼빈은 기적이라는 말로 답변했다. 그는 자연 현상이나 과학적인 방법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성서의 내용을 기적으로 처리했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방주의 원 설계자이시라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여러분이 이 역사에서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능력을 배제한다면, 여기에 있는 모든 말들은 단순한 우화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선포하는 결과에 이르고 말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나머지 모든 일이 믿을 수 없는 기적에 의하여 보존되었다고 고백하는 우리에게는 여기에서 언급된 놀라운 많은 일들이 절대로 불합리한 것이 아니며 그것이 기록된 것은 우리의 모든 지각을 훨씬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밀하고도 위대한 능력을 더 분명하게 나타내려는 것임을 고백한다. 포피리(Porphry)나 다른 트집쟁이들은 그것에 대한 이유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혹은 그것이 일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혹은 자연의 공통된 질서에 모순되기 때문에 이것이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반대한다. 그러나 나는 답변한다. 즉 모세의 이 모든 이야기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다면 그것은 흥미 없고 시시하며 우스꽝스럽다는 것이다.”³³⁾

32) 창세기 6:15 주석.

33) 창세기 6:15 주석.

수많은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불가사의한 기적에 의해서라는 것이다. 그리고 성서 본문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방주에 그 많은 동물들이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우신 능력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이다. 따라서 본문을 읽으면서 파악해야 하는 것은 자연과학적인 지식에 의하여 본문의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이라는 것이다.

이밖에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칼빈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처리했다. 즉, 역청으로 건조한 방주가 어떻게 안전하게 홍수를 견딜 수 있었는가? 코끼리같이 큰 동물도 들어갈 수 있는 방주의 문이 견고하게 닫힐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방주 안의 환기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는가? 동물들의 오물로 인하여 방주 안의 공기는 질식할 정도였는데 노아는 어떻게 견디어냈을까? “그러므로 모세는 우리의 호기심이 제시하는 헛된 공상들을 야기하는 동기를 단정해 버리기 위해서 한마디로 방주는 홍수로부터 안전했는데, 인간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에 의해서였다고 선언했다.”³⁴⁾

노아가 그렇게 큰 방주를 만드는데 얼마나 오랜 기간을 소요했는가에 대해서 칼빈은 100년 이상이였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에 의하면, 창세기 6:22은 매우 간단하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장기간 계속된 노아의 노동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다. “...엄청난 크기의 방주는 그로 하여금 감히 손을 대서 일을 착수하려는 엄두를 내지 못하게 그의 모든 감각을 완전히 압도해 버렸을 것이다. 베어야 할 수많은 나무, 그것들을 운반해야 할 엄청난 인부들 그리고 그들을 불러모으는 어려움을 생각해 보자. 그 문제는 역시 오랫동안 연기되었다. 이 의인은 가장 힘든 노역을 하는데 100년 이상이 요구되었다.”³⁵⁾ 100년 이상이라는 기간은 방주의

34) 창세기 7:16 주석.

크기와 당시 노동의 조건, 재료 구입 등을 감안하여 칼빈이 추측한 것인데 그는 이를 합리적이라고 여겼던 것 같다.

칼빈은 홍수의 모습을 묘사하는 창세기 7:11의 표현 즉 “그날에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는 비가 줄기차게 내리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했다. 즉 하늘에 샘이 있어 그곳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모습을 은유적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했다. “샘 물의 근원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고 말할 때 모세의 언어는 은유적이고, 그 말의 의미는 물이 지금까지 내리던 방식이나 비가 하늘로부터 방울방울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듯이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장치가 제거되어, 격동하는 난입을 제어할 어떠한 방책도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칼빈은 노아 홍수 때 비가 내리는 모습을 이해할 때에 본문이 은유적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것은 칼빈의 우주관이 성서에 나오는 고대 이스라엘의 우주관과 달랐기 때문에 나오는 해석이었다. 본문은 고대 이스라엘의 우주관에 따라 하늘 위에도 실제로 물의 저장고가 있어서 비가 올 때나 홍수 때에 그 물이 열린다는 사고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칼빈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을 따랐기 때문에 하늘에 물의 저장고가 있다는 사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6. 맺는 말

칼빈은 코페르니쿠스가 제시한 지동설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통적이고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천동설을 믿고 있었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새로운 이론으로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천문학자들 사이에서도 별로 인정받지 못했는데 칼빈에게도 생소한 이론이었다. 그러나 칼빈은

35) 창세기 6:22 주석. 창세기 7:1 주석 참조.

루터와 멜랑히톤 등 다른 종교개혁자들과는 달리 성서 본문을 인용하면서 코페르니쿠스와 그의 추종자들을 비난하거나 저주하지 않았다. 그가 남긴 문서에는 코페르니쿠스의 이름이나 이론을 직접 거론한 것이 한 번도 없다. 칼빈은 당시 새로운 과학인 지동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자연과학의 발전에는 매우 개방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그는 성서뿐만 아니라 자연에서도 하나님의 계시와 섭리를 찾아 볼 수 있다고 믿었으며, 자연과학의 발전은 바로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그는 자연과학적 진실과 성서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 적응의 원리라는 성서해석의 원리를 적용시켰다. 그리하여 성서는 자연과학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과학책이 아니라 교육받지 않은 무식한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게 아주 평범하고 통속적인 문체로 자연이나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신앙의 책이라고 주장했다. 성서가 기록될 때 그 대상이 아주 평범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문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성서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과학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그렇게 표현한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칼빈의 성서해석방법은 자연과학의 발전에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었고, 과학자들로 하여금 성서문자주의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탐구를 하게 했다.³⁶⁾

36) 성서의 문자적인 무오성을 제시하면서 그 내용이 과학적으로도 틀리지 않다는 주장은 칼빈에 의해서가 아니라 17세기 초 북유럽의 몇몇 개신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Barbour, *Religion and Science*, 13.

참 고 문 헌

- Barbour, I. G., *Religion and Science: Historical and Contemporary Issues* (San Francisco: HarperCollins, 1997).
- Blackwell, R. J., *Galileo, Bellarmine, and the Bible*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1).
- Bouwisma, W. J., *John Calvin: A Sixteenth Century Portrai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이양호, 박종숙 역, 『칼빈』 (서울: 나단, 1991).
- Calvin, J., *Calvin's Commentaries*, trans., Calvin Translation Society (Grand Rapids: Baker, 1979).
- Cicero: *De Natura Decorum - Academica*, trans., H. Rackham (LCL;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33).
- Gamble, R. C., ed., *Calvin and Science* (New York: Garland, 1992).
- Gerrish, B. A., "The Reformation and the Rise of Modern Science: Luther, Calvin and Copernicus," in *Calvin and Science*, ed., R. C. Gamble (New York: Garland, 1992), 1-16.
- Hooykaas, R., "Calvin and Copernicus," in *Calvin and Science*, ed., R. C. Gamble (New York: Garland, 1992), 35-44.
- Kaiser, C. B., "Calvin, Copernicus, and Castellio," in *Calvin and Science*, ed., R. C. Gamble (New York: Garland, 1992), 45-71.
- Luther, M., *Luther's Works*, ed., J. Pelikan, Vol. 54 (Philadelphia: Fortress, 1967).
- McGrath, A. E., *Science and Religion: An Introduction* (Oxford: Blackwell, 1999).
- Probes, C. M., "Calvin on Astrology," in *Calvin and Science*, ed., R. C. Gamble (New York: Garland, 1992), 118-30.
- Reid, W. S., "Natural Science in Sixteenth-Century Calvinistic Thought," in *Calvin and Science*, ed., R. C. Gamble (New

- York: Garland, 1992), 179-94.
- Russell, B., *Religion and Scienc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35).
- _____,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 (London: Allen and Unwin, 1946).
- Stauffer, R., "Calvin et Copernic," *Revue de l'Histoire des Religions*, 179 (1971), 31-40.
- Wendel, J., *Calvin: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 (London: Collins, 1963), 김재성 역, 『칼빈: 그의 신학 사상의 근원과 발전』(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2),
- White, A. D., *History of the Warfare of Science with Theology*, Vol. 1 (New York: Appleton, 1896).
- White, R., "Calvin and Copernicus: The Problem Reconsidered," in *Calvin and Science*, ed., R. C. Gamble (New York: Garland, 1992), 131-42.